

# 전남-경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결의  
양 지역의원 등 “최우선 통과 협력”  
광역기반시설 구축·투자 지원 담겨  
자연자원 활용·동서간 교통망 기대

전남도가 경남도와 양 지역 정치권과 함께 남해안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한 해안이나 섬 등 자연자원 활용 확립 동서간 광역교통망 구축 등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서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개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단위의 기반시설 및 추진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실제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손꼽히는데다 갯벌·해안 및 이순신 장군의 승전 등 문화·역사 유산 자원의 보고 등 가치도 뛰어나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등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실을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는 등 꾸준히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 “경남도와 협업과 분담이라는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조속한 법안 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남해안권의 발전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경제 재분배로 인한 지방소멸 극복 해법으로도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이에 지난 2005년 경남도가 주도한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부터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개정까지 지난 19년간 지지부진했던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적·물적자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며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 전남産 농수산물식품, 美 LA서 ‘인기몰이’

### 한인축제에 20개 수출기업 참여 ‘K-푸드’ 김·식혜 등 완판 행렬

전남도는 세계 최대 한인축제인 LA한인축제에 전남 20개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이 참여해 현지 동포는 물론 미국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74년에 시작된 LA한인축제는 해외에서 열리는 한인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의 축제다. 제51회 LA한인축제는 지난달 26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LA서 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됐다.

농수산 엑스포, 한국 음식 부스, 패션쇼, 태권도 시범, 퍼레이드, K팝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활동으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커뮤니티와 화합을 도모했다.

전남도는 이번 LA한인축제 농수산 엑

스포에 장류·한과·식혜 등 전통식품과 쌀, 김, 미역, 새우 등 농·수산물 수출기업 등 20개 사가 참여해 케이푸드(K-FOOD)의 중심지인 전남의 농수산물식품을 선보이며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등 LA를 남도의 맛으로 물들였다.

미국은 일본에 이은 전남의 2위 농수산물 수출국으로, 김, 음료, 전통 장류 등 9358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8%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전남이 대한민국 농수산물품 대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LA한인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은 가장 한국적인 맛을 자랑하는 케이푸드(K-FOOD)의 본고장”이라며 “전남의 농수산물식품과 함께 그리는 고국의 맛과 정을 느낄 것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 자체제작 공연·프린지리그 호평 금남로·비엔날레광장 등 다원화

광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금남로, 광주비엔날레 광장, 시청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펼쳐진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제공연을 자체 제작하고,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프린지리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 미술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공연을 펼쳤다.

특히 축제 공간을 다원화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금남로에서 펼쳐졌던 공연이 시민 편의를 위해 현대미술 축제장 광주비엔날레와 시청 야외음악당까지 광주 전역에서 열렸다.

‘어쩌다 마주친’을 주제로 한 거리예술 공연은 지진 일대에서 벗어나 여유와 낭만을 선사했다.

국내외 초청, 국내 공모, 아카데미 육성을 통해 서커스·가면극·신체극·연극·음악극·무용·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공연 22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주제공연 ‘아스팔트 부르스’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배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중장비·살수차·공중무대 등이 동원된 대규모 공연으로 시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프린지에서 첫선을 보인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프린지리그’도 인기를 모

았다.

전국에서 총 35개팀 331명이 참가, 팀 퍼포먼스·1대 1·3대 3 부문별로 화려한 댄스배틀이 벌어졌다.

치열한 승부 끝에 팀 퍼포먼스 대학부는 ‘백제예술대’, 청소년부는 ‘광주연합’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1대 1 일반부는 ‘짐(JEEM)’, 청소년부는 ‘헤비락(HEAVY LOCK)’, 3대 3 대학부는 ‘113 스트리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호진·리벨·진우·도미니크·먼로·유카리 등 최고 수준의 스트리트 댄서 심사위원들의 다채로운 쇼케이스와 진조크루·프랜치 프라이즈·악시 등 유명한 전문댄스팀의 특별공연은 관객들을 스트리트 댄스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다.

노병하 기자

KCRM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부족한 자원, 어떻게 쓸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다시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발생 폐기물의 약 49%는 건설폐기물이며,  
수집·운반, 분리·선별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는  
소중한 건설자원입니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특별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전문보증기관”입니다.

-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 ▶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 ▶ 건설폐기물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 사업

www.kcrm-g.com